

비영리 조직인 싱크퀘스트(ThinkQuest)는 매년 전세계의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자료 공모전을 개최한다. “ThinkQuest Internet Challenge”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ThinkQuest Junior”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10,000 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있고 100만 달러 이상의 상금도 수여된다.

올해 열리고 있는 싱크퀘스트 주니어 공모전에서는 요즈음 최종심에 오른 77개의 작품을 공시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심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 중에 “타지마할”이라는 작품이 있다. 인도의 문화 유산인 타지마할에 대한 화면과 정보를 담고 있는 교육자료이다. 작년에는 이집트 유산에 관한 교육자료로 디자인상까지 받은 “이집트 세계”라는 작품이 있었고 “태권도”를 주제로 하여 최종심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된 작품도 있었다.

당연히 해당 국가 학생들이 출품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이 작품들이 인도, 이집트, 한국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타지마할은 미국의 아칸사스 로저스 시에 있는 조 마티아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다섯 명이 제작한 작품이고, 이집트 세계는 미국과 독일 학생들이 인터넷으로만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며, 태권도는 불가리아 학생들의 작품이었다.

지난달 초 영국국립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본으로 자랑하고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디지털화되어 화면으로 재현되고 있었고, 영국의 정신유산에 해당된다는 구텐베르크 시절 썸에 출판된 오래된 성경들을 스캐닝한 다음 화면 상에서 책처럼 한 장씩 넘기며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다. 귀중본의 디지털화 작업은 정밀하게 복제를 해야하고 또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한 권당 10억원 정도의 제작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안내하던 도서관 직원은 지난 3월에는 북한에 가서 그곳 고문헌들의 디지털화 문제를 협의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다가, 일본 게이오 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디지털 성경책을 보여 주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복제물 한 부와 그 이용권을 게이오 대학과 공유하기로 하고 지원을 받았다는 설명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조금 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화면을 보면서 느꼈던 심정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자존심 상해하던 그 직원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이해했다.

영국국립도서관만 자국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의회도서관도 “American Memory”라는 프로그램에서 500만개 이상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역사적 문건, 음향자료, 그림 등을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일본 모두 디지털 시대에서 자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지키고 또 남의 것도 가져오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인도와 이집트 국민들은 사람들이 타지마할을 공부하기 위해 미

국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고 또 막을 수도 없다. “산업화는 늦었으나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홍보 문구는 난무하고 있는데,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국립도서관에 접속하고 태권도를 알기 위해 불가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이나 프랑스에 빼앗긴 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강화도 서고의 귀중본들을 보면서 느끼는 심정이 전혀 다를 수가 없었다.